대행 스님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업보가 붙습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신도회장 큰스님께서 이렇게 시카고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질의 응답 하실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한국에서는 큰스님 뵈려고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미국에서는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니까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질문자1(남) 아까 큰스님께서 말씀 거의 끝마무리 무렵에서요,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업보도 지은 거 없고 원죄도 지은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러죠. 여러분은 여기 발을 붙이고 지금 내가 산다 이러시지만 그 사는 게 지금 찰나에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막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그걸 표현할 때, 아버지가 됐을 때는 의연히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여보!" 할 때 의연히 남편 노릇을 합니다. 또 "얘, 아무개야!" 하고 부모가 부를 때는 의연히 자식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위치 속에서,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저 찰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판국에 거기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업보가 있다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따라서 '나는 업보로 인해서 이렇다.' 하니까 업보가 붙는 거지,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데 거기 어떻게 업보가 붙습니까? 과거는 바로 현재에 짊어지고 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공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업보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죄 붙을 자리도 없어서 모든 것에 끄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런 데서 끄달린다면 그 차원은 3차원의 차원도 4차원의 차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놔 보십시오, 거기 붙을 자리가 있나. 금방 아버지 노릇 하고 금방 남편 노릇 했는데, 방귀 뀌면 뽕 소리는 났는데 도대체 간 곳이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병 붙을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완전히 터득을 하시고 물리가 터지시려면 나로부터, 나부터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믿고 거기에서, 믿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마시고요. "주여, 잘해 주십시오." "부처님이여, 잘해 주십시오." 이럭하면 벌써 둘이 돼. 그러면 그 업보가 붙어!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믿음과 더불어 둘이 아니어야 되겠죠? 납득이 안 가십니까?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납득이 갈 듯한데요. 하하하.

큰스님 알쏭달쏭입니까?

질문자1(남) 왜 그런가 하면 찰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요, 찰나가 모여서 영원의 실체가 되고 찰나라는 게 누적이 돼서 영원이 되는 건데, 우리가 찰나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죄도 붙을 수 없고 어떠한 업보도 붙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좀 더 제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생각하고 내 삶의 실체를 항상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스님 말씀 듣고 내 자신의 삶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아리송한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한 의견입니다.

큰스님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내는 데서 '이것이 될까, 안될까?' '이것은 뭘 어떻게 해야 옳을까?' '이거 잘하는 걸까? 망하지나 않을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걸림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이지, 그 마음내기 이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거기에 아무것도 붙을 데가 없습니다.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나온 것도 없어서 갈 것도 없고, 이 자리가 천당이고 이 자리가 지옥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보신다면, 자기를 잘 터득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환히 밝아져서 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전통신기 하면 벌써 우주 전체를 들을 수 있고 저런 꽃 한 송이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속을 빤히 안다. 과거에 어디서 온 거를 안다. 가고 옴이 없이, 이 실체가 아닌 내 마음, 그 영령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그것이 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에서 벗어나야, 시스템 이 자체에서 벗어나야 그 바퀴를 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불바퀴라고 하죠.

불가에선 불바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뭐라고 하더라? 블랙홀이라나, 뭐. 난 이름도 잘 모르니 블랙홀이라던가? 하하하…. 요렇게 해야, 좀 모르는 듯하고 미련한 듯하고, 아주 몰라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알면요, 웃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우리가 전부 통한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릴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거기는 수없는 영계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없는 거를 빼내도 줄지 않는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아실 것 같으면 우리가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질문자2(남) 맥킨리에 사는 OOO입니다. 스님께서 한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큰스님 허허,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셈을, 숫자를 세었대요. 하나도 하나요, 둘도 하나요, 셋도 하나요, 만도 하나요, 천도 하나니 그 하나도 없느니라 이랬대요. 왜냐? '하나' 하고 '둘' 하고 세고 가니까 하나 부른 거는 벌써 둘에 가 붙어 버렸죠? 그러니 하나죠. 아무리 세어도 하나더랍니다. 하하.

질문자2(남) 큰스님께서 과거심도 말할 수 없고 또 미래심도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찰나도 이미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스님 (법상 위의 잔을 들었다 내리심)

질문자3(남) 사보이 일리노이에서 온 OOO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제가 법문을 못 들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가슴속에 담고 있던 걸 한 세 가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참나를 찾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책을 봤을 때는 스님께선 상당히 그 육체적인 고행을 많이 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참나를 찾는 건 마음에서 찾는 건데 꼭 육체적인 고행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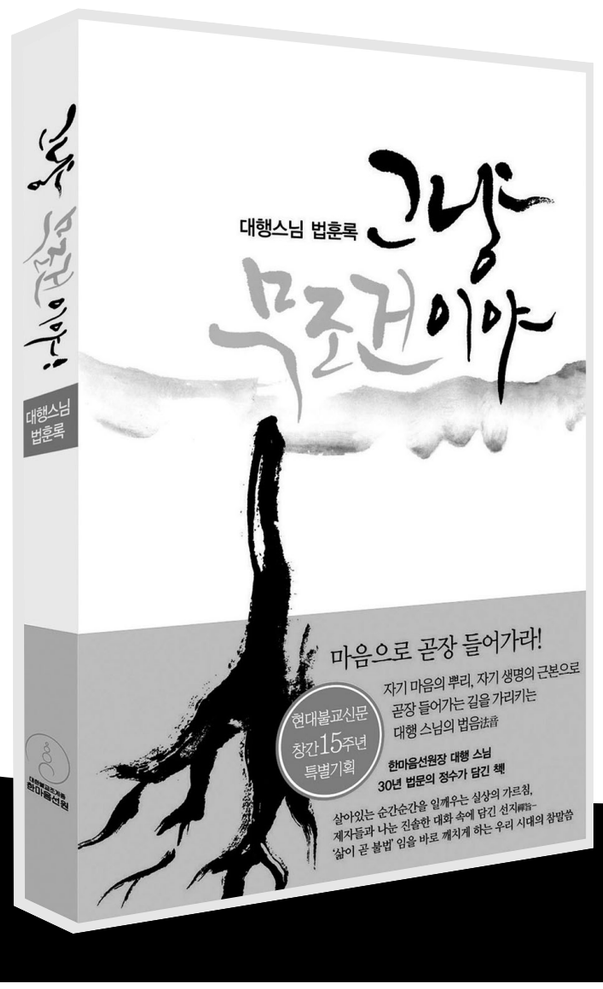
큰스님 부처님께서도 힌두교에서 몸으로 고행하는 걸 막으셨죠?

질문자3(남) 예.

큰스님 그런데 당신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몸으로 고행을 해야만 됐느냐고 지금 묻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